글로벌 이슈

2014년 세계 보험산업 현황과 전망[1)]

채원영 연구원

■ 2014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선진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른 선진시장 생명보험 실적 개선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한 4조 7,782억 달러를 나타냄.

- 선진시장[2)] 수입보험료는 3조 9,39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생명보험 성장 호조로 2013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4년 2.9% 증가로 전환하였음.
- 신흥시장[3)] 수입보험료의 경우 8,389억 달러로 전년대비 1.5%p 상승한 7.4% 성장하였음.

■ 우리나라의 2014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1,595억 달러로 세계 8위, 보험밀도[4)]는 3,163달러로 세계 19위, 그리고 보험침투도[4)]는 11.3%로 세계 4위를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6.3% 증가한 1,016억 달러로 세계 8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579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하여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함.
- 2014년 보험침투도는 2013년 11.9%보다 0.6%p 하락한 11.3%이며 보험밀도는 전년대비 268.0 달러 상승한 3,163.0 달러임.

■ 2014년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미 연준, BOJ 및 ECB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에 따른 자산시장 회복으로 ROE도 상승하였음.

- 2014년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오세아니아, 일본 및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시장과 신흥아시아[5)] 시장의 견고한 성장세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2조 6,54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선진시장 수입보험료는 북미지역의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선진아시아 시장이 증가전환하고 서유럽, 오세아니아의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3.8% 늘어난 2조 2,325억 달러를 기록함.

1) Swiss Re(2015. 6), "World Insurance in 2014: back to life"를 요약·정리함.
2) 북미, 서유럽(터키 제외), 이스라엘, 오세아니아,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3) 남미, 중앙유럽,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이스라엘 제외), 터키, 아프리카.
4) 보험밀도 = 총보험료 ÷ 인구수;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 ÷ 명목GDP
5) 선진아시아(일본,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 신흥시장의 경우 신흥아시아(+9.9%)시장의 높은 성장세로 6.9% 증가한 4,220억 달러를 나타냄.

◍ 2014년 세계 생명보험 ROE는 ECB 및 BOJ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에 따른 주식시장 호조로 서유럽시장 투자이익이 확대되면서 2013년 12.0%에서 1.0%p 상승한 13.0%를 기록하였음.

- 세계 생명보험산업 자본은 2009년 이후 견고한 이익 상승세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채권 미실현이익이 자본에 반영되어있어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한 자본관리가 필요함.

2014년 세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3년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요율인상 추세 약화 및 투자영업수익 둔화로 ROE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세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조 1,237억 달러로 선진시장 성장세 확대가 신흥시장 성장 둔화를 상쇄하면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3년 성장률인 2.0%보다 0.9%p 높은 수준임.

- 2014년 선진시장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1조 7,068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3년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사고 및 건강보험 요율 인상 효과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 반면 신흥시장의 경우 지역별 성장차별화[6]로 2013년 8.6%에서 0.6%p 하락한 8.0% 증가에 그침.

◍ 2014년 주요 8개국[7] 손해보험산업 ROE(세후)는 합산비율 상승, 경과보험료 대비 투자수익 비율[8]의 하락, 미국 및 서유럽지역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축소로 2013년 8.6%대비 1.0%p 하락한 7.6%를 나타냄.[9]

- 2014년 합산비율은 2013년 97.5%대비 0.6%p 상승한 98.1%를 나타냈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요율인상 추세 약화 등이 원인임.
- 경과보험료 대비 투자수익 비율의 경우 저금리 지속으로 전년대비 1.0%p 하락한 8.6%를 기록함.

◍ 한편, 지급능력비율(Solvency)[10]이 전년대비 3%p 하락한 123%를 기록하였음에도 자본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의해 작성되어 과장됐을 수 있음.

- 저금리 지속에 따른 채권 및 고정금리 금융상품의 미실현이익이 자본에 계상되어있어 현재의 자본 수준은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으며 이는 금리인상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
- 또한 투자수익률 개선을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는 요구자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Reserve releases)은 준비금 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잠재적 자본 수준회복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Swiss Re 등)

---

6) 중국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베트남의 경우 견고한 경제성장세로 전년대비 7.3% 성장한 반면 태국은 정정불안이 지속되면서 0.1% 성장하는데 그침.

7)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호주. 2014년 원수보험료 기준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64.26%임.

8) 평균 투자 수익(Average total investment income) ÷ 경과보험료(net premiums earned)

9) 세계 손해보험 ROE는 2008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자수익률 하락과 2008~2012년 보험영업적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임. 최근의 일부 종목 및 시장에서의 요율 인상으로 보험영업이익이 상승하였음.

10) 자본(Capital) ÷ 원수보험료(Premium)

〈부록〉 2014년 세계 보험시장 개관

구분		수입보험료[1] (십억 달러)	수입보험료 성장률(%)		비중 (%)	침투도 (%)	밀도 (달러)
			2014년	2013년			
전체	전세계	4,778.2	3.7	0.1	100.0	6.17	662.0
	선진시장	3,939.3	2.9	-1.0	82.4	8.15	3,666.3
	신흥시장	838.9	7.4	5.9	17.6	2.71	135.6
	우리나라	159.5	4.7	-	3.3	11.3	3,163.0
	미주	1,594.0	1.1	-1.4	33.4	6.29	1,637.8
	북미	1,405.8	0.7	-2.2	29.4	7.31	3,968.5
	남미	188.2	4.1	5.7	3.9	3.07	304.1
	유럽	1,697.5	3.5	1.4	35.5	6.83	1,902.0
	서유럽	1,627.6	3.7	1.5	34.1	7.77	2,995.7
	중앙/동유럽	69.9	-1.5	0.8	1.5	1.91	217.5
	아시아	1,317.5	6.5	-0.5	27.6	5.21	307.4
	선진아시아[2]	802.9	3.8	-3.8	16.8	11.44	3,728.3
	신흥아시아	465.6	11.8	7.0	9.7	3.10	125.6
	중국	328.4	15.2	-	6.9	3.2	235.0
	ASEAN	88.7	7.2	9.1	1.9	3.32	131.5
	오세아니아	100.1	15.8	7.3	2.1	5.92	2,600.3
생명보험	전세계	2,654.5	4.3	-1.8	100.0	3.43	367.8
	선진시장	2,232.5	3.8	-2.8	84.1	4.65	2,089.6
	신흥시장	422.0	6.9	3.6	15.9	1.36	68.2
	우리나라	101.6	6.3	-	3.8	7.20	2,014.0
	미주	655.6	-1.4	-5.6	24.7	2.59	673.6
	북미	580.4	-2.0	-6.8	21.9	3.02	1,638.3
	남미	75.2	3.3	4.2	2.8	1.23	121.6
	유럽	1,002.7	5.6	2.3	37.8	4.08	1,138.3
	서유럽	983.1	5.8	2.5	37.0	4.77	1,837.7
	중앙/동유럽	19.6	-2.1	-3.3	0.7	0.53	61.0
	아시아	892.3	6.1	-3.9	33.6	3.55	209.2
	선진아시아[2]	604.7	4.5	-6.4	22.8	8.69	2,830.6
	신흥아시아	275.3	9.9	3.3	10.4	1.83	74.3
	중국	177.0	13.4	-	6.7	1.70	127.0
	ASEAN	55.1	8.3	9.8	2.1	2.22	88.0
	오세아니아	58.1	27.5	9.3	2.2	3.44	1,508.8
손해보험	전세계	2,123.7	2.9	2.7	100.0	2.74	294.2
	선진시장	1,706.8	1.8	1.4	80.4	3.51	1,576.7
	신흥시장	416.9	8.0	8.6	19.6	1.35	67.4
	우리나라	57.9	1.9	-	2.7	4.10	1,149.0
	미주	938.4	2.9	2.0	44.2	3.70	964.2
	북미	825.5	2.6	1.4	38.9	4.29	2,330.2
	남미	113.0	4.7	6.8	5.3	1.84	182.5
	유럽	694.8	0.4	0.2	32.7	2.74	763.7
	서유럽	644.5	0.6	0.1	30.4	3.00	1,158.0
	중앙/동유럽	50.3	-1.2	2.5	2.4	1.37	156.5
	아시아	425.2	7.5	8.2	20.0	1.67	98.2
	선진아시아[2]	198.2	1.7	5.2	9.3	2.76	897.8
	신흥아시아	190.3	14.6	13.2	9.0	1.27	51.3
	중국	151.5	17.4	-	7.1	1.50	109.0
	ASEAN	33.6	5.4	8.0	1.6	1.10	43.5
	오세아니아	42.0	2.6	5.0	2.0	2.49	1,091.6

주: 1) 수입보험료는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하여 전세계 수입보험료 합이 각 지역 수입보험료의 합산과 다를 수 있음.
2) 일본,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in 2014", Sigma 4/2015.